

## ◆ 법정에서 쫓겨난 검사 ◆

요한계시록 12:7-17

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 
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

### [서론]

사복음서를 단 한 줄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?

“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.”(계 12:5)



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 지상사역을 마치고 고난 받아 죽으시고, 사흘 만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이 땅에서 낙심한 제자들을 위로하며 사명을 재위임하시고 승천하셨다. 그런데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.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온 존재가 있다.

바로 ① \_\_\_\_\_이다.(계 12:9)

매우 대조적이다. 옛 뱀. 마귀. 큰 용. 천하를 꾀는 자 즉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건의 결과로 하늘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완전히 쫓겨난 것이다.

예수께서도 ②\_\_\_\_\_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이 쫓겨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.

“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인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”(요 12:31-33)

**그 일의 결과로 하늘에서 올려퍼지는 승리의 찬양이 이어진다.**

“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③\_\_\_\_\_ 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③\_\_\_\_\_ 하던 자가 쫓겨났고...”(계 12:10)



### [본론]

본문은 하늘에서 쫓겨난 용에 대한 내용을 재차 강조하며(계 12:9) 그 사단을 ‘③\_\_\_\_\_ 하던 자’(계 12:10)라고 표현한다. 사단은 하늘 법정에서 검사(prosecutor) 노릇 하던 자이다.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④\_\_\_\_\_ 하는 자다. 그런 그가 이제 쫓겨났다.

**왜냐하면, 그동안 참소 거리가 되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⑤\_\_\_\_\_ 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하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조차 앎으시기 때문이다.**



그래서 사도바울은 "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"(롬 8:1-2)고 선언한다. 사단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더 이상 할 ⑥\_\_\_\_\_이 없어졌고, 그래서 쫓겨 난 것이다.

**사도요한은 당시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단은 이미 참패했다는 이 사실을 알려 주고 싶었던 것이다.**

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땅으로 내려와서 지상에 거하는 ⑦\_\_\_\_\_를 핍박한다. "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들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..."(계 12:15)

하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목마른 이스라엘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다.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반석은 곧 ⑧\_\_\_\_\_ (고전 10:4)라고 분명하게 말씀한다. 그러므로 '용이 물을 뿜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'는 표현은 한 마디로 사단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 내는 것이다. **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는 ⑨\_\_\_\_\_ 물이지만, 용이 뿜는 것은 성도를 공격하고 ⑩\_\_\_\_\_ 것이다.** 즉 이는 미혹하는 사단의 계락을 의미한다.



## [결론]

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듣기 좋은 말만을 들으려 한다.

"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."(딤후 4:4)

교회 안에서 '십자가와 부활의 복음'의 생수를 마시지 않고 저마다의 행운과 형통을 찾아 다닌다. 또 '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등산 할 때 마치 정상까지 여러 코스 중 다른 코스로 가도 된다'는 등의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거짓된 구원관 등이 바로 용이 토하는 물이라 할 수 있다.

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서 조차 안전하다. 땅이 그 뱀이 토해 낸 물을 삼켜 버리기 때문이다.(계 12:16)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 말씀으로 미혹하는 사단의 핍박 속에서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고 건져 낸다는 말씀이다.

우리는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.(계 12:11)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이긴 자다.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.

**신앙생활은 '이기기 위하여 싸우는' 것이 아니라 '이미 ①\_\_\_\_\_ '로서 싸우는 것이다.**

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신앙의 여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계신다.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자.

## [적용과 기도]

❖오늘 배운 내용을 삶 속에서 함께 기도합니다.

-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 됨을 믿습니까?
-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는 사탄을 향해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.
-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는 사단의 거짓된 속삭임을 분별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. 복음의 생수를 마시고 나누고 전하는 신앙 되기를 기도합니다.

**[정답]**

- ① 사탄
- ② 십자가
- ③ 참소
- ④ 고소
- ⑤ 예수 그리스도
- ⑥ 할 일
- ⑦ 하나님의 교회
- ⑧ 그리스도
- ⑨ 살리는
- ⑩ 죽이는
- ⑪ 이긴 자